

화승 초심

HWASEUNG Life
Magazine

2023 SPRING
Vol 70



아장아장 걸다가
이제야 비로소,
직립보행을 시작하는

첫
외.
출.





새 정장을 갖춰 입고
새로운 일터를 향해.
직장인으로서의

첫
출근。

내 삶의 주체이자
한 직장의 일원으로.
더 큰 세상을 향한

첫
출。
장。



COVER STORY

7세대 그랜저 프레임리스 도어를 개발한 자랑스러운 화승R&A 얼굴들입니다. 개발에서 양산까지 독보적인 기술력과 팀워크가 만든 결과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 쾌거를 이룩한 주역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① SL개발팀 최인규 선임 ② SL설계팀 배진형 책임 ③ SL생산기술팀 정용규 책임(팀장) ④ SL설계팀 차지윤 선임 ⑤ SL생산기술팀 박기범 선임 ⑥ SL설계팀 박준호 선임 ⑦ SL개발팀 전유근 책임 ⑧ SL품질보증팀 조진웅 선임 ⑨ SL운영팀 정철우 선임 ⑩ SL개발팀 송주화 책임(팀장) ⑪ SL품질보증팀 박종철 책임(팀장) ⑫ SL운영팀 이창수 책임(팀장) ⑬ 통합기술센터 SL설계실 박상희 실장

CONTENTS

2023 SPRING Vol.70

총괄 화승 그룹홍보팀 김병호 팀장

화승 그룹홍보팀 심일욱 선임

화승R&A 이지학(기획팀 선임)

화승소재 임상호(영업관리팀 팀장)

화승T&C 박건국(관리팀 사원)

화승인더스트리 이성수(IR/경영관리팀 매니저)

화승케미칼 한동민(경영지원팀 매니저)

화승네트웍스 김기훈(전략기획팀 선임)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차장

미국 화승코퍼레이션 ARHQ 최일영 책임

중국 화승코퍼레이션 CRHQ 문지훈 선임

2023년 3월 20일 발행(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연제, 바00003

신고일자 2016년 8월 30일

발행인 현지호 편집인 김정식

기획·진행 화승 그룹홍보팀 김병호·심일욱

편집·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02-515-3681)

표지 사진 김지훈

인쇄 우일인쇄

펴낸 곳 화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장천빌딩 화승 비서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메일 illwook.sim@hscorp.com

08 Greeting

70년을 발판으로 100년 기업으로,
화승의 새로운 역사,
함께 만들어 나아갑시다

SETTING

12 70보100보

질기고 오래가는 고무에 담은,
화승의 첫 마음

14 HS-SPACE I

늘 있던 그 자리에 책만 놓았을 뿐입니다

18 HS-SPACE II

늘 있던 그 자리에 안락함을 더했습니다

20 초심인터뷰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

26 70th 초심로드맵

늘 하던 일에 늘 걷던 길에
‘70주년’이라는 이름을 더합니다

30 70th 전람회

화승과 부산대가 만나
예술꽃이 피었습니다



ACTING

38 화승인사이드

화승, HMG GN7 프레임리스 도어를
개발하다

46 히든-화승템

눈코입을 사로잡는 하프커피,
센텀시티에 상륙하다

50 화승+화승인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로,
삶의 터전을 이어준 화승

54 알쓸신잡 화승

당신은 무슨 총[#]인가

56 친애하는 HS

보물 백자 대호,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전에 초대되다



EXCITING

60 핫플인사이드

부산 영도의 썸, 힙, 핫~한 피아크^{PARK}

64 방과후 화승

풋살동호회 러버풀 FC
풋. 풋한. 라이프

68 문화프리즘

발레, 낯설지만 아름다운 예술

72 제法이다

기업의 윤리경영, 지속 성장을 위한
마스터-키

76 HS NEWS

80 화승별그램





70년을 발판으로 100년 기업으로, 화승의 새로운 역사, 함께 만들어 나아갑시다



화승 가족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화승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승을 일군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창업 당시의 열정과 도전을 되새기며 100년 기업,
화승의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화승, 환경의 한계를 벗어나 70주년의 원대한 비전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보기 좋은 비전이 아니라 100년 기업, 화승의 미래를 책임질

실행의 비전으로, 액션 플랜이 담긴 마스터 플랜이어야 합니다.

한두 해가 아닌 5년, 1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심미안으로

화승의 빛나는 미래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과감한 혁신과 도전에 나서야만 할 때입니다.

먼저, 늘 하던 것만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신사업의 성과를 앞당기고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

뉴 화승의 구체적인 플랜을 구현해야 합니다.

화승에도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사업들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도전 자체가

화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승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리스크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끌어줄 유망 기술과 신사업에 대한 도전은
늘 우리 화승의 과제입니다.

기존 주력 사업 역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 사업은 공고히 하고 신사업에 대한 열린 사고와 기회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강력한 실행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을 주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100년 화승을 이끌 마인드 리셋이 필요합니다.

항상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반성을 통해

늘 올바른 판단과 화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절약이라는 말이 어느새 잊힌 유물 같은 낱말이 되었지만

절약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더욱 견고한 화승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꼭 상기했으면 합니다.

화승코퍼레이션과 화승인더스트리 두 사업의 축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며 원 화승, 하나의 화승으로

월드 클래스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전 그룹사의 원활한 소통으로 글로벌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화승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0년 화승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핵심 인재 확보가 기업의 사활이 되고 있습니다.

화승도 우수 인재의 영입과 육성에 남다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결국 최고의 화승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화승 가족 여러분!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위하는,

사이 좋은 화승으로

새해를 힘차게 열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증명된

우리의 위기극복 역량과

도약의 본능을 믿고,

100년 기업 화승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3 계묘년 새봄

화승 회장 **현승훈**

SETTING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그리고 화승 창립

70주년의 해입니다.

모든 감각을 세워

매 순간 움직일

태세를 갖춘 토끼처럼

화승의 2023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화승, 초심을 품은

70년 내공으로

정상을 향해 뛰어갑시다.



질기고 오래가는 고무에 담은,

‘새해가 되어 새 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취업에 성공해 첫 출근하는 새내기 직장인들’하면 떠올리게 되는 마음,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나 품을 수 있지만 되되기 어려운 마음. 바로 처음 먹은 마음, 초심이다. 개개인 누구나도 쉽지 않은데 ‘일로 함께하는 가족’을 거느린 기업이라면 더 비장하고 무거울 수밖에….

1953년 부산 초량동에서 ‘동양고무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첫 삼을 뗄 때 품은 마음이 이와 같았다. 척박하고 불모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사장이나 직원들 구분 없이 함께 잘살아보고자 하는 집념이 초심으로 응집했다. 초창기 ‘질기고 오래가는 고무신’이라는 시장에서의 외침은 제품 홍보를 위해서만이 아닌 2023년 화승을 있게 한 초심이었다.

화승 70년은 비바람 맞고 눈보라도 맞았지만 한 발 한 발 꺾이지 않고 장구한 시간을 묵묵히 걸어온 결과다. 질기고 오래가는 초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장 현명한 삶은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살아왔기에 지금의 화승은 미래를 말할 수 있다. 매일매일을 초심으로 작심한다면 화승 100년, 직관할 수 있다.

화승의 첫 마음



늘 있던 그 자리에

책만 놓았을 뿐입니다

부산 연산동 화승사옥 장천빌딩 10층,
자율업무공간으로 직원들의 편안한 업무공간과 동시에
휴식공간인 이곳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이미 본 책, 한 권 두 권이 모여더니 서재가 되었고
화승코퍼레이션 HR팀이 도서관 업체와 힘을 모으니
사내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없습니다.
사서가 부담스럽게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늘 있던 그 자리에
책만 놓았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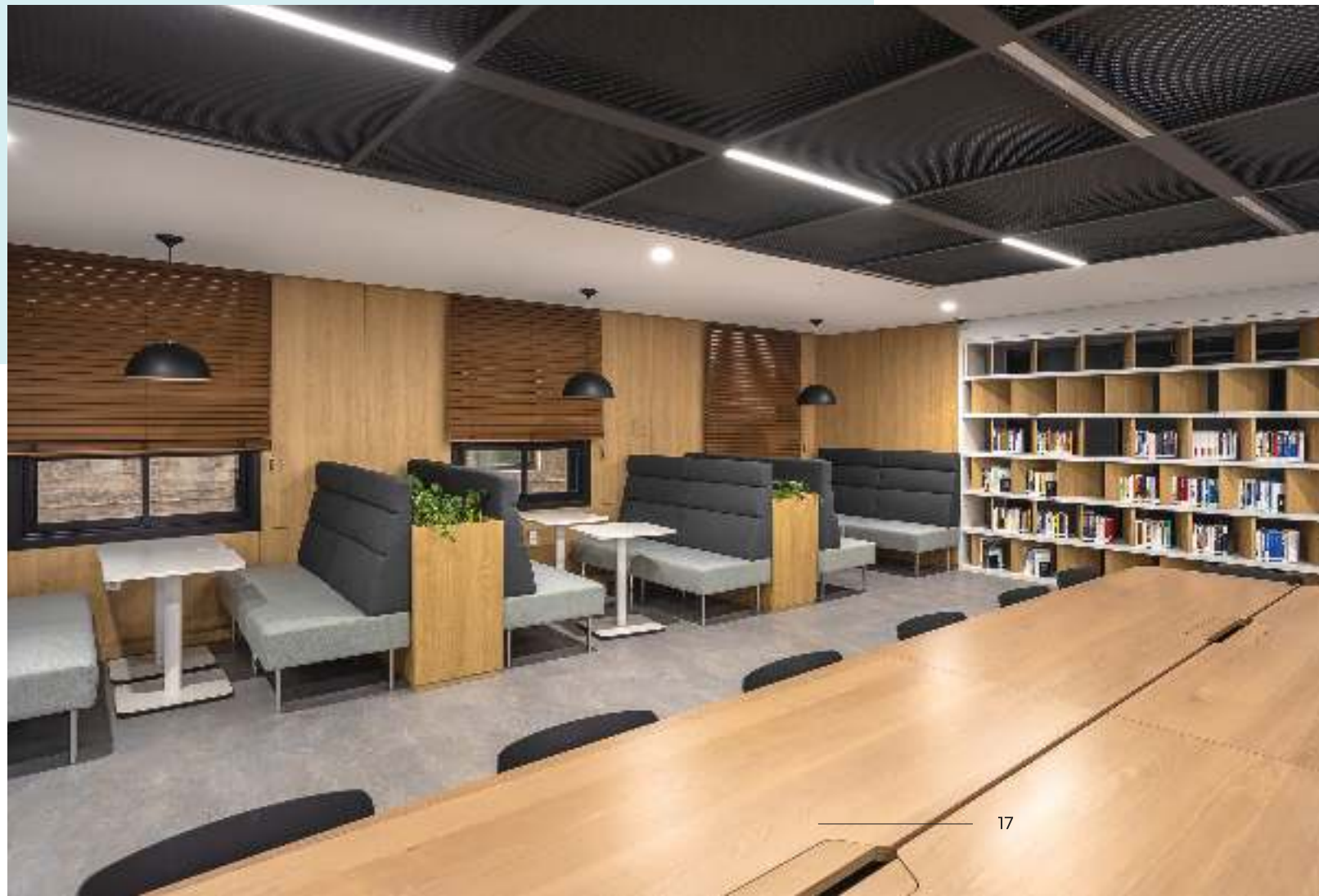
쉼이 필요한 순간, 잠시 들러
읽고 싶은 책에 바코드를 대고 입력하면
자율 대출이 됩니다.



책만 대출하는 게 아닙니다.
휴식을 대출하고 지식을 함께 대출하는 겁니다.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눈치도 볼 일 없이
오직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찾고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해서 읽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나만의 도서관입니다.

책 한 권과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있는 곳,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업무에 집중이 필요한 순간, 찾고 싶은 곳.
잠시의 수면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곳.
화승 사옥 속의 계열사 간 코-웍, 협업이 가능한 곳.
10층 라운지가 존재하는 다양한 이유들입니다.

장천빌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여러분!
선불리 발길을 옮기지 못했다면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을 눌러보세요.
바벨수룩 돌아가는 법입니다.
점심시간 이곳에 잠시 들러 한 권의 여유를 만나고
동료들과 휴식을 만끽하세요. **70**





화승R&A H라운지



공장 특유의 고무 향기,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잠시 피해
휴식할 수 있는 곳.

업무 얘기보다는 개인사를,
직급보다는 언니 형님 하며
깔깔호호 웃음이 피어나는 곳.

편안한 소파와 그윽한 커피 향기,
스피커 속 재즈가 흐르는 'H 라운지'에서
오늘도 지쳐가는
화승 양산인의 영혼을 달래보세요. 70



늘 있던 그 자리에 안락함을 더했습니다

경남 양산 화승R&A 본관 2층,
딱딱한 사무실이었던 공간이
직원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탈바꿈했습니다.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주) 회장

기업의 창업주, 리더들에게 초심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은산해운항공(주)의 양재생 회장이라면 바로 답할 거 같다. 현승훈 회장과의 인연뿐만 아니라 화승원에 고려불화의 명인, 월제 헤담스님의 수월관음도를 기증한 양재생 회장을 만나본다. 그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절대 긍정 메시지가자 한결같은 초심에 대해 들어보도록 한다.



빈곤과 결핍을 성장과 희망의 에너지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불황, 부동산 침체 등 계묘년 벽두에도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암울한 뉴스뿐이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호방한 웃음과 기운으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인물이 있다. 부산 향토기업으로 동남권 물류, 부동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은산해운항공(주)의 창업주이자 불굴의 리더, 양재생 회장이다. 그가 필생의 업으로 생각하는 물류업의 근황에 대해 물었다.

“물류는 인체로 비유하면 동맥이고 국가 경제로 치면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제조기업이 바늘이라면 우리는 실이고요. 국내든 해외든 경제가 원활히 돌아야 물류도 활발해집니다. 경기가 좋아야 물류업도 좋겠지만, 그동안 좋지만 하거나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경영하면서 이보다 더한 경제 위기를 겪어왔으며 이런 시기를 오히려 기업 발전의 기회로 삼아왔다는 양재생 회장. 그가 이런 데는 나름의 내력이 있다. 14살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지만, 가난과 절대 빈곤의 상황은 오히려 그를 일으키게 한 스승이었고 성장을 위한 에너지였다. “학창 시절 가방보다 지게를 더 많이 매었고 배고픔 속에 잠든 적도 많았지만, 그 시절 제 머릿속에는 희망과 성공의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고, 첫 직장인 동서해운에서 18년을 근무한 후 1993년 은산해운항공(이하 은산)을 창립했다. 매일매일이 도전이었고, 새로운 도전에 임할 때마다 그에게 필요했던 건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열정 에너지였다. 그렇게 시작된 외침이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였다. 수많은 변수와 함께하는 일과 삶 속에서 자신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한 근간이자 무기이지 않았을까.

고객과의 신뢰를 우선으로 여기는 경영

자신만의 루틴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양재생 회장의 하루는 새벽 4시에 기상해 국선도로 시작된다. 20년째 해운 국선도로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수련을 통한 심신의 건강까지도 챙기고 있다. 수련의 방편인 명상을 통해서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이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도 빼놓지 않는다. 기도의 대상으로는 직원들, 함께 해온 인연들, 그리고 고객들이다.

그래서일까 인공지능, 첨단시스템으로 물류 환경이 바뀌고 있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객이고, 고객에 대한 신뢰를 우선하는 경영이다. 창업 때부터 오직 신뢰와 의리로 고객의 화물을 안전하게 전 세계 어디든 운송해야 한다는 초심, 마음가짐으로 무장해왔다.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을 신뢰로 보답하는 게 의무이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은산은 국제물류주선업을 바탕으로 컨테이너터미널, 수출포장업은 물론 헬스케어와 생수 사업도 펼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시작한 헬스케어와 생수 사업은 평균수명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토양오염, 유전자조작식품, 옥수수 사료로 키워지는 가축 등 먹거리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물류가 기업의 수출을 돕는 산업이라면 사람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이로운 사업이 없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꿈은 꿈꾸는 자의 것이고, 내일은 내일을 굳게 믿는 자의 것”이라는 양재생 회장, 그가 바라는 은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종합물류기업 은산해운항공그룹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물류기업이 되는 것, 그리고 ‘헬시언’ 생수와 ‘은산 이피미 바이오프로’를 통해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첨단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본주의 회사, 사람 냄새 나는 회사로 발전시키는 게 은산해운항공 그룹의 비전”이라고 덧붙인다.

기차표 고무신에 대한 추억, 화승과의 인연

“내 클 때 동양고무 하면 기차표였다 아닙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제공한 검정 고무신, 저도 많이 신었습니다. 흰 거 말고 검은 거요. 흰 고무신은 엄두도 못 냈지요.” 어린 시절 동양고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동향의 향토기업인 화승에 대한 애정과 현승훈 회장과의 인연을 풀어내는 양재생 회장.

“신실한 불자이시자 존경받는 기업인이신 현 회장님을 젊은 시절부터 흠모하고 존경했었습니다. 만나 뵙고 싶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10여 년 전 친구인 서울 프리마호텔 이상준 대표 소개로 뵈게 됐어요. 회장님과의 만남





수월관음도를 그린 월제 해담 스님의 화승원 방문 소감문

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회장님의 경영철학과 삶을 귀감으로 삼고, 불자로
서의 가르침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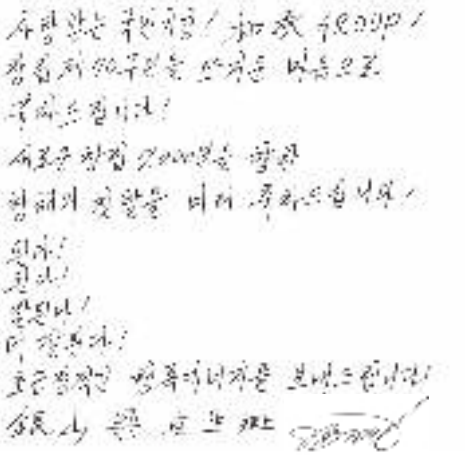
교본이 쌓일수록 현승훈 회장과 많은 부분이 닮아있고, 닮아가고 싶다는
양재생 회장, 지난 12월에는 화승원에 의미 있는 작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고려불화의 명인, 월제 해담스님의 수월관음도이다. “평소 베풀어주신 혜
(惠)에 대한 작은 보답이자, 화승원에 수월관음도가 나투심으로써 현 회
장님께서 거목처럼 오래오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
으로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회장님 성품에 극구 사양하시는 바람
에...” 그 공덕 때문이었을까, 오랜 시간을 거친 후 인연법이 닿아 성사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화승에 대한 덕담과
축하 전언도 잊지 않는다.

“현수명 선대회장님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지금의 화승을 창립해 우리
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을 더해주시는 부산의 위대한 기업인이셨고, 그 유지를
받든 현승훈 회장님께서도 화승을 세계 최고의 고무 가공기술을 가진 화
학자동차 부품·소재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부산 향토기업으로서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길 응원하며 창립 70주년
을 넘어 7,000년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파이팅!”

누구나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다. 출발선에서 가졌던 그 마음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그 사람과 기업의 미래를 말해주는 건 아닐까. ‘된다, 된다,
더 잘 된다’라는 초지일관한 마음이 지금의 은산과 양재생 회장을 있게 한
것처럼.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청년 기업 은산과 열정과 긍정의
리더, 양재생 회장에게 그만의 트레이드마크를 반사해본다.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Epilogue

지난 2월, 양산상공회의소 산업시찰단으로 베트남 화승비나를 방문한 양
재생 회장, 글로벌 화승을 체감한 기회였다며 방문 소회를 전해왔다. “화
승비나 호치민 공장의 직원들 한 분 한 분의 근로 자세와 상상 이상의 웅
장하고 매우 체계적인 사업 현장의 역동성에 깜짝 놀랐다”며 “함께 둘러
본 상공회의소 회장단 모두 감탄과 놀라움을 연발했다”고 한다. 이번 방문
을 통해 현승훈 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 화승의 내공과 저력을 다
시 한번 느꼈다는, 감탄과 감사의 메시지였다. 70



은산해운항공(주)
www.eunsan.co.kr /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65 / 051-441-9966

헬시언(HEALTHY-ON) 1988년 4월 국내 최초 발견 국산 게르마늄
광천수. 게르마늄 60ppb 함유(미국 FDA 산하 RCH연구소 검사
결과), 일본건강스포츠연맹(JFHS) 최초 추천 생수.

은산 이피미 바이오프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시켜 악취 없는 배변활동을 도와주는 5종 혼합 식물성 유산균
함유, 유익균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까지 풍부한 건강식품.

늘 하던 일에
늘 걷던 길에

‘70주년’이라는
이름을 더합니다



70th Celebration

1953년에서 2023년까지
화승이라는 이름으로
한결같이 70년의 길을 걸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굴곡진 길을 따라
다리를 만들어 이어왔습니다.

화승의 70주년은
8월 7일, 하루의 창립기념일이기보다
365일 매일매일 뜻깊은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화승만의 축제이기보다
세상 모두의 셀레브레이션(Celebration)으로
늘 하던 일에, 늘 걷던 길에
70주년이라는 이름을 더합니다.



부산역, 김해공항에서 매일 만나는 광고,
사보, 웹사이트, 사내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기존 제작물에서 70주년을 만납니다.
방송 광고 캠페인, 후원, 협찬 행사에서
또한 70주년을 마주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화승에
70주년의 의미를 더합니다.



70th Celebration

70주년기념사업단 TF를 통해
1년의 연중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매월 새로운 70주년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사내 전시, 발레 초청공연, CI 변경 등
하는 일, 가는 곳곳에서
화승의 70주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승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월 새로운 참여 이벤트가 열리며
화승의 스피릿과 소통합니다.



창립기념행사를 통해
연중 셀레브레이션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12월.

보여주기보다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내기보다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화승의 70년 진심을 더합니다.



화승과 부산대가 만나

**예.술.꽃.이
피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화승과 부산대 대학원 금속조형 전공 동문들이 함께 손을 잡았다. 지난 2월 14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연산동 화승 사옥 2층 미디어홀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린 것. ‘두드림(DO DREAM)-2023, 연결, 그리고 확장’을 주제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현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금속조형 전공 동문 24명이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부산대 조형학과 교수이자 금속조형 대표 작가인 안순주 교수의 기획으로 열린 이번 동문전은 안 교수 작품도 직접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 김병호 화승 그룹홍보팀 팀장 사진 손호남

국립 부산대 예술대학 조형학과 금속조형 동문전의 일곱 번째 막이 올랐다. 전시의 시작과 함께 진행된 오프닝 행사. 화승 현승훈 회장, 현지호 부회장, 동명재단 서의택 이사장, 세운철강 신정택 회장, 경동건설 김재진 회장, 대원플러스건설 최삼섭 회장, 부산MBC 구자중 사장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해 화승과 부산대 금속조형 전공의 전시를 축하해 주었다.

발달장애 청년작가인 황성제, 심승보, 윤진석 작가와 어머니들도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심승보 작가는 부산대 안순주 교수가 직접 가르쳤던 작가로 현장에서 포옹하며 맞이할 정도로 따뜻한 순간을 보여줬다. 금속 재료 각각의 기본적인 물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조형적이면서도 구조와 기능을 갖춘 금속조형 50여 작품의 전시가 진행된 이번 '두드림(DO DREAM)-2023, 연결, 그리고 확장展'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THE METAL ARTISTS

강 서 영	권 영 건	김 경 준	김 문 정	김 은 주	김 은 진
김 재 훈	남 채 린	박 세 희	박 소 영	박 준	배 희 수
신 인 주	신 정 임	아이솔라	이 근 규	이 원 주	이 현 정
장샘인들	조 하 안	지 승 현	최 혜 진	허 건 태	

한 명 한 명 작가의 작품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은 오프닝의 모든 순서에 있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작가로서 자신의 작품 앞에, 그리고 작품을 향유하는 관람자들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그 순간이 작가들에겐 더없는 감동의 순간으로 오래 남을 듯하다.



DO DREAM





THE METAL



ARTS & ARTISTS



기쁨과 환희, 행복과 감사로 가득한 사랑의 느낌을 표현한 안순주 교수의 작품 '사랑을 꽃피우다'는 일찌감치 컬렉팅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한아름의 꽃다발을 화병에 꽂은 것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사랑의 충만을 소망하는 따뜻한 작품이다. 그 외에도 2021년 부산미술대전 공예 부문 대상을 수상했던 지승현 작가의 '만개하다', 고목을 재해석한 박소영 작가의 '박제된 세월 2', 창과 방을 모티브로 풀어낸 박세희 작가의 '치유의 방', 쉬어가고 싶은 일상의 순간을 담은 '고요한 밤' 등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10일간의 전시 대장정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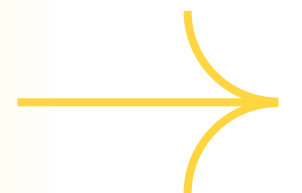
화승 70주년의 의미를 더하는 이번 부산대 전시는 쉽지 않은 창작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작가들 앞날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부산 예술의 미래를 꽃피울 청년작가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번 전시를 놓쳤다면 내년에 있을 여덟 번째 동문전에는 꼭 방문해 금속조형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예술의 품속으로 풍덩 빠져 보시길 추천드린다. **70**



ACTING

36 — 37

화승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GN7 프레임리스
도어를 개발, 양산으로
이끈 화승R&A가
바로 그 주역입니다.
A to Z,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자세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한
화승인들이 있어
지금의 화승이 있습니다.





화승, HMG GN7 프레임리스 도어를 개발하다

HMG(현대자동차그룹) 그랜저 7세대 신형이 시장에 출시되었다. 세대별 계보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신형 그랜저에 대한 핫 이슈로는 도어에 프레임이 없다는 것. 까다로운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이 작업에 화승의 개발인력이 투입되었다. 국민차의 계보와 명성을 뒷받침한 주역, GN7 프레임리스 도어를 개발한 화승R&A TF팀을 만나본다.



화승이 만든, 신공법·신재료의 프레임리스 도어



박상희 실장
통합기술센터 SL설계실

그동안 신형 그랜저 GN7 프레임리스 도어 개발로 분주했을 것 같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HMG(현대자동차그룹)는 98년 출시된 3세대 그랜저(XG)에 처음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했고, 이후 투스카니, 제네시스쿠페, 포르테쿵, K3쿵 차량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 화승은 이러한 프레임리스 차량개발에 직접 참여해왔고, 양산한 런칭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K3쿵의 양산런칭이 2013년이었고 지난 2020년 하반기, 또다시 프레임리스 개발런칭을 프리미엄 세단 그랜저에 적용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화승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선행 수주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2021년 1월, 당당히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 그랜저 양산런칭까지는 모델고정부터 19.5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된다. 그랜저 명성에 걸맞게 사양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그동안 국내 차량에는 화승이 공급하지 않던 후드, 트렁크리드 등의 웨더스트립까지 전체 실링 제품을 런칭하게 되면서 매출액 상승에도 기여했다.

신차 출시 100일이 넘었다. 주문업체인 HMG, 그리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떠한가?

지난 11월 신차 출시 이후 100일 동안에는 품질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신차 100일 작전'을 펼쳤다. 전 부문 협력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다. GN7은 조기에 안정적인 품질수준으로 훨씬 빨리 양산 체제에 돌입할 수 있었다. 현재 성공적인 런칭으로 "역시 화승"이라는 감사 인사를 받고 있다. 전기차, 그리고 미래차 디자인으로 프레임리스 차량이 주력으로 뜨고 있다. 이런 트렌드 속에서 화승의 차별화된 실링 기술력은 고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닌 고객이 우리 기술력을 찾아서 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프레임리스 도어를 개발한 TF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및 개발 중 에피소드를 들려준다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신공법, 신재료, 많은 부자재 등을 개발해

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한 TF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함께 노력한 결과물로 멋지게 런칭할 수 있었다. 고객사 경영층의 관심과 기대가 큰 차종이었던 만큼 설계, 개발, 평가, 품질 실무진들의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협업과 기술력으로 잘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프레임리스 차량의 취약점인 수밀 부문에서 물 한 방울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개발목표로, 현장에서 엄청나게 물을 뿌려가며 개선 포인트를 찾아내 최적화했던 때가 떠오른다. 이런 노력이 있어 프레임리스 차량의 고압세차 비교평가에서 월등한 성능으로 우세를 차지할 수 있었다.

독보적인 화승 기술력의 총체 HMG GN7 프레임리스 도어

GN7 프레임리스 도어는 기존 런칭한 프레임리스 1세대에서 또 다른 신규 컨셉이 적용된 프레임리스 2세대 차량이다. 프레임리스 차량의 실링 기술은 기존 차량 대비 웨더스트립 요구기술이 집대성되는 수밀, 풍절음(바람소리), 이음, 승강 최적화의 성능 및 외관을 만족해야 되는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이다. 화승소재 개발의 EPDM, TPE재료, 그리고 화승케미칼과의 협업으로 성능개선 코팅제가 적용되었다. FRT FIXED 인캡은 국내 최초 제로플러스쉬 사양으로 A PLR FIXED부를 포함한 전체 플러쉬 글레이징 형상 구현을 통한 수려한 외관 및 풍절음을 개선하였다. 픽스드 사양에는 어셈블리를 위한 글라스에 PP 레일을 부착하고 알루미늄 채널 적용 등 신공법, 신재료를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성능 및 외관을 만족할 수 있게 구현하였다. 또한 비전검사기를 통한 새로운 공법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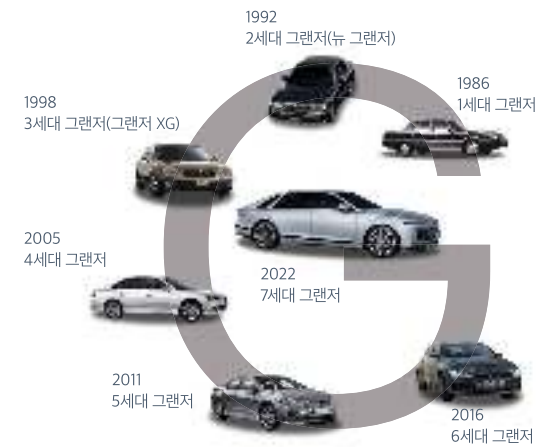
글라스 승·하강 기능을 담당하는 인너벨트의 EPDM 조인트 사양에는 기존 플로킹 본드 접착 대신 플로킹 테이프를 부착하는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였다. 이 또한 압출소재와의 외관 연결성, 마모 및 이음 부분 성능개선을 위한 최초 신공법이다. 프레임리스 차량은 웨더스트립의 승강 및 이음, 그리고 수밀 등 전체 성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코팅제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성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코팅제 개발 및 다양한 성능평가를 통해 화승만의 기술력으로 최적의 친환경 수성코팅제를 구현하였다.

프레임리스 차량 실링 제품의 성공적인 개발 포인트는 설계, 생산 기술, 재료, 코팅 등 여러 부문이 합쳐진 화승만의 차별화된 기술 개발력에 있다. 이번엔 출시된 HMG 신차 GN7 프레임리스 도어는 화승 기술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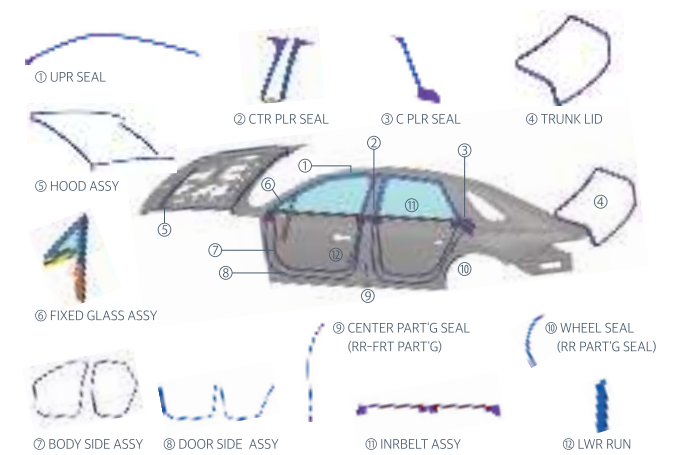
2023년은 화승 70주년이다. 업무적인 계획이나 화승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

2세대 프레임리스 차량 양산런칭 외에도 미래모빌리티 부문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개발해왔다. 미래모빌리티 디자인의 차별화, 특화된 실링 기술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더 업그레이드된 화승의 실링 기술력이 탑재된 플러쉬 글레이징 도어, B필러리스 코치도어의 런칭으로 재도약할 것이다. 화승 70년과 함께 성장한 시간의 실링 기술력으로 이제는 자동차뿐 아니라 실링이 요구되는 또 다른 마케팅 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화승, 100년 기업의 명성까지 쭉~욱 파이팅!

그랜저 히스토리



자동차 웨더스트립





수주활동에서 개발대응까지, 어려움 속 뿌듯한 결과

● 송주화 팀장
화승R&A SL개발팀

2007년 화승R&A SL개발팀으로 입사한 송주화 팀장, 2009년~2014년까지 미국 HSAA 주재원을 거쳐 지금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가 맡은 SL개발팀에서는 고객사의 차량개발 일정에 맞춰 내부 일정을 관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안정적으로 양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HMG 신형 GN7 차종은 수주활동에서부터 개발, 양산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부분이 없었으나 팀 업무 특성상 수주활동과 개발대응에 역점을 두었다고 한다.

HMG GN7 수주는 영업팀과 함께 고객사의 여러 부서에 찾아가 화승의 프레임리스 기술력에 대해 어필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분석해 다시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여러 번 반복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후에는 신속한 대응 체제로 돌입했다. GN7 타입의 프레임리스 사양이 고객사와 화승R&A 모두에게 처음이다 보니 미확정된 사양이 많았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 다양한 샘플을 만들어 신속하게 평가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개발 일정과 양산 착수에 문제가 되므로 하루하루 진행사항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만 했다.

화승이 개발한 제품이 조립되어 시장에 공개되는 뿌듯함도 있지만, 해당 차량을 양산시키기 위해 정신없이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는 송주화 팀장. 지금의 자리를 맡게 되면서 일하는 즐거움을 팀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업무를 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개선안을 찾음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해결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팀이 함께한다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2002년 9월에 입사해 동기들끼리 ‘월드컵동기’라고 부른다는 이창수 팀장, 어느덧 20년 세월을 화승과 함께하고 있다. 그가 맡은 SL운영팀에서는 이번 개발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업무에 집중했다. GN7 그랜저 개발과정에 있어서 웨더스트립 제품에 대한 모든 신뢰성시험을 검증하고 양산 이후 발생할지 모를 문제점을 사전 검증하는 ‘시험평가 업무’와 사업본부의 작은 기획부서라고 할 수 있는 ‘운영 업무’이다.

GN7 프레임리스 도어 개발의 핵심 포인트라면 코팅 성능. 양산을 위해 HMG와 1년여 공동 개발한 코팅이 실제 차량에서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다행히 관련 팀들이 밤을 새워 개선한 결과, 일정 내 목표성능에 만족할 수 있었고 무사히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관련 팀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코팅 개발에 힘써주신 화승케미칼 자동차소재연구팀 김균도 부장님, 노동범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는 그는, 제품 출시 후 보람이나 뿌듯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문제점을 예측·검증하고, 이를 개선해 제품으로 출시된다 해도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시 이후 6개월 정도까지는 언제나 불안과의 공존이다. 다행히 GN7 그랜저는 현재까지 큰 문제점 없이 잘 양산되고 있다고.

체력이 받쳐줘야 다음을 계획하고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이창수 팀장은 ‘건강한 직장생활’을 입사 이후 꼭 초심으로 삼았다. 이런 그의 올해 목표는 업무 특성상 ‘손익 확보’를 꼽는다. 대외 여건상 우려가 크지만,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30년 후 ‘100년 기업의 힘’이란 타이틀로 화승이 TV에 나올 기대도 함께.

시험평가 업무와 운영 업무로 긴장해야 했던 시간들

● 이창수 팀장
화승R&A SL운영팀





최적의 생산공정 설계 및 양산라인의 조기 안정화 지원



정용규 팀장
화승R&A SL생산기술팀

2004년 1월 입사한 정용규 팀장은 글로벌 고객사 차종 담당(GM 및 Stellantis 등)으로 해외법인 HSAA, HSAM, HSTR, HSAB 공장 설립 지원 업무를 했으며 2016년~2019년 HSB 주재원을 거쳐 현재 SL생산기술팀을 맡고 있다. 이 팀은 신차 양산을 위한 최적의 생산공정을 설계하고 개발단계 동안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현실화하는 등 양산라인의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HMG GN7 프레임리스 도어 생산을 위해 중점을 둔 부분이라면 신규 도어 타입인 프레임리스 도어 적용을 위해 기존과 다른 사양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신규 공법 설계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집중했다고 한다. 특히 Inner Belt 성형부 후로킹 파일 도포, Fixed Glass 제로플러쉬 인캡슐레이션 조인트 등 신규 공법 양산화에 노력했다고 한다.

그가 참여해 만들어진 물품이 시중에 제품으로 출시되었을 때의 느낌을 묻자, “TF팀원들과 같이 연구하고 검토한 결실이 출시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걸 보면 뿌듯함을 느낍니다”라는 말과 함께 “더 안정적이고, 획기적인 공법을 개발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도 토로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GN7 공정의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신이 입사할 당시 화승은 글로벌 생산기지를 하루가 다르게 확장하며 키워가던 시기였다고. 그래서 회사 성장에 기여하고 싶었고, 거기서 보람을 느꼈다는 정용규 팀장. 현재는 여러 힘든 여건상 서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가족들 모두가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업무적으로는 화승 70주년을 맞아-혁신 테크 기업으로의 초석을 만들어-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기초 연구에 집중하고 싶다고 한다.

2008년 6월 경력직으로 입사한 박종철 팀장은 신차 품질, 수출품질보증 업무를 주로 진행했다. 팀이 담당하는 업무로는 실링 제품의 신차 품질(신차 고객사 승인 및 초기 품질 안정화) 및 양산차 품질(고객사 인라인, 필드 클레임) 보증업무라고 한다.

HMG 신형 그랜저 GN7 개발에 참여한 팀으로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중점을 둔 부분이라면 세차나 장마 시 누수, 그리고 고속주행 시 풍절음이다. 프레임리스 도어 차량 실사용자인 운전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설계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모드로 수많은 평가를 진행했다.

“GN7 차량을 완성차 공장, 도로에서 볼 때면 아~ 이쁘다, 그리고 우리가 해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차가 출시되고 100일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 기간에는 필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부품, 고객사의 조립성·설계 사양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프레임리스 도어 차량은 차체·조립·부품 모두가 일치돼야 한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더불어 함께 하자’, 박종철 팀장이 올해 다짐한 마음, 초심이다. 기분을 지키고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한다면 개인적 성장뿐 아니라 회사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리고 계묘년 품질보증팀의 슬로건은 ‘기분으로 돌아가자’이다. 기분을 지키며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만들어나가자는 의미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화승에 대해서는 100주년, 200주년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란다. **70**

누수와 풍절음에 중점을 두고 실사용자 모드로 평가 진행



박종철 팀장
화승R&A SL품질보증팀





눈코 입을
사로잡는
하프커피,

센텀시티에
상륙하다



화승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품질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이미지가 만든
입소문으로 숨기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화승의
숨은 아이템을 만나본다.

그 첫 번째로 일상 속 즐거운
먹거리,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하프커피다. 부산 센텀시티에
상륙한 오감만족 하프커피를
담아보았다.



지난 12월 16일, 화승인더스트리의 푸드테크 기업 ㈜여덟끼니의 프리미엄 커피·디저트 카페인 '하프커피'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매장을 오픈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은 강남 파미에스테이션, 대구, 신사, 신세계 타임스퀘어에 이어 12번째 매장이다. SNS와 입소문을 들은 많은 이들이 오픈 일부터 꾸준히 하프커피의 버터크림라떼와 도넛을 먹기 위해 줄을 서거나 포장을 해가는 등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하프커피는 ㈜여덟끼니의 브랜드로 누적 판매 150만 잔을 돌파한 버터크림라떼가 시그니처 메뉴다. '스카치캔디 맛'이라는 입소문을 타기도 한 버터크림라떼는 높은 우유 함량을 지닌 크림만 사용해 더욱 깔끔하고 스페셜티 커피와 버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메뉴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9월 라지사이즈를 출시했다. 버터크림라떼 외에도 말차크림라떼, 흑임자크림라떼, 바나나크림라떼, 아인슈페너 등 다양한 크림라떼를 맛볼 수 있다.

하프커피 센텀시티점에서는 신사점, 대구점에 이어 리뉴얼한 베이커리도 선보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바삭함과 촉촉하고 폭신한 식감을 살려낸 도넛과 직접 만들어낸 크림을 듬뿍 충전한 시그니처 베이커리인 브리오쉬번 이외에 크림과 번의 밸런스를 업그레이드한 도넛과 아메리칸 스타일의 쫄쫄하고 달콤한 르뱅쿠키를 비롯해 다양한 메뉴들이다. 베이커리와 커피, 맛과 향으로 줄 서게 만드는 하프커피 센텀시티점은 부산 신세계백화점 지하 2층에 있다. **70**



기술을 잇는 글로벌 기업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로,

삶의 터전을
이어준

화승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인연이라고 하지만 부모와 자식, 어머니와 아들로 맺어진 인연이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화승에는 아주 특별한 인연의 모자(母子)가 있다.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아들도 다니고 있다. 화승이라는 큰 나무 아래서 삶의 터전을 일궈가고 있다는 화승소재 김석진 노조 부위원장과 그의 어머니 문승현 여사를 만나보았다.





어머니와 아들이 한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요. 현재 두 분의 소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SON) 저는 2007년도에 생산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설비팀으로 부서를 옮겨서 8년 정도 근무했어요. 지금은 화승소재 TPE 생산팀 소속으로 명례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화승 입사 15년 차입니다. **(MOM)** 외삼촌이 오랫동안 동양고무에서 미싱 기사로 일해오신 덕에 처녀 시절 잠깐 근무했었고요.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1980년도에 다시 취업해서 1년 정도 더 일했어요. 지금은 화승R&A 청소용역 업체에 소속되어 7년째 일하고 있죠. 이곳 양산으로 출근합니다.

어머니께서 예전 동양고무에 다니셨는데요. 그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때를 떠올리신다면?

(MOM) 그때는 뭐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지요. 바빴어요. 야간작업도 많았고요. 동양고무가 기차표 고무신으로 유명했거든요. 우리 때는 많이 사서 신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동양고무에서 일할 때는 고무신이 아니라 운동화를 만들었어요. 월드컵 아시죠? **(SON)** 그때 월드컵 신어보는 게 자랑이었죠.

오늘의 이 자리는 부위원장님이 기억하고 있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에서 비롯됐다고 하던데요?

(SON) 엄마가 연장 근무할 때면 여동생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동

생 손잡고 동양고무 정문 앞에서 기다렸었거든요. 그러면 수위 아저씨가 “니들 뭐하노”하더라고요. 엄마 기다린다 했더니 “아직 멀었으니 집에 가 기다리라”고 하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 전 회식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고 있네요.

부위원장님 입사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때의 마음가짐은 어땠었는지도 궁금합니다.

(SON) 솔직히 다른 회사에도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화승과 같은 날 면접이 잡힌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화승에 다니고 있던 친구가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안 오면 배신이라고요.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입사했던 거 같아요. 큰 회사에 와서 우리 가족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가리라는 그게 초심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들의 화승 입사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MOM) 말이 필요 있습니까, 너무 좋았죠. 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출근하게 된 화승이 옛날에 엄마가 다녔던 동양고무였다고요. 놀라고 신기했어요.

현재 노조 부위원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SON)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이 우리 가족, 동료들 삶의 터전이기 때



서로에게 어떤 어머니, 어떤 아들인가요. 그리고 서로 닮은 점을 꼽으신다면요?

(MOM) 세상 모든 엄마가 그렇겠지만, 제게는 착한 아들입니다. 어질고 너무 착합니다. 말썽 없이 잘 성장해서 가정 일구고 사는 게 고맙지요. **(SON)** 어릴 적 시장가면 “엄마라 하지 말고 이모라 캐라”고 하셨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쁘고 젊은 어머니죠. **(MOM)** 일을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것, 그건 진짜 서로 닮았어요. **(SON)** 엄마나 저나 성격이 살갑지 않고 무심한 듯합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닮은 거 같은데요.

올해가 화승 창립 70주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축하나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SON) 선배들이 쌓아온 것을 우리 후배들이 잘 이어나가도록 노력해야죠. 70주년 향토기업에서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화승 파이팅! **(MOM)** 화승, 70년 넘어 100년으로 파이팅!

문에 당연히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네요. 2017년 설비기술팀에 있을 때 대의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노조 활동은 어떠십니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SON) ‘상호 간 상생하는 노사분위기 만들자’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모아서 조율하고 회사에 어필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이익이 아닌 낙오자 없이, 다 같이 상생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요.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고, 또 내가 있어야 회사도 있으니까요. **(MOM)** 입바른 소리 하며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회사나 직원들, 서로를 위한 일인데 어찌겠어요. 이제는 ‘잘 해내겠다’하는 마음뿐이죠. **(SON)** 엄마는 아직도 저를 물가에 내놓은 애로 생각해요. 자식이 미움받을까 봐 그게 한걸정이시죠(웃음).

‘화승’이라는 지붕 아래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 서로 마주치신 적은 있으신가요?

(MOM) 노조회의를 여기 양산에서 하거든요. 수요일이 되면 ‘아들 오겠다’하고 생각하죠. 왔을 때 보고 가면 좋은데, 상황이 안되면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SON)** 종종 간식 챙겨서 기다리십니다. 엄마가 이곳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반갑고 좋습니다.





정약충



클래식충



운동충



영어충



열혈충



수집충

당신은 무슨 충^蟲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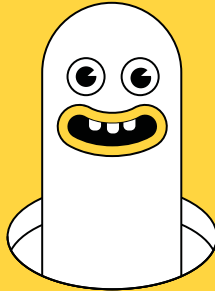
우리말에는 ‘○○벌레, ○○구석, ○○머리’ 등 사람들의 심리 경향과 행동 양상을 어떤 대상이나 형태에 비유해 표현하는 낱말들이 있다. 일과 삶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이런 조합어가 예전과 달리, 사고의 혁신과 행동의 외연을 넓히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하등 동물의 통칭인 벌레가 인간사와 얽히면서 어떻게 통용되고 인식이 변화되었는지 살펴본다.



설명충



노력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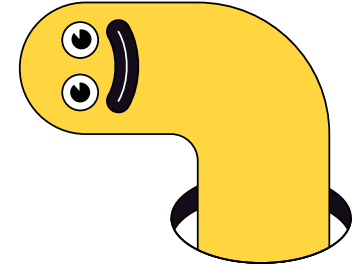
부정적 의미와 표현의 통칭이었던 벌레

벌레의 사전적 의미는 1차적으로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뜻하지만 ‘어떤 일에 열중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요즘은 후자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21세기보다 20세기 태생이 아직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무슨 ‘벌레’가 들 어간 낱말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 온다. 오래전 에피소드 하나가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해준다.

채번 검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담임은 반 아이들 앞에서 온갖 벌레들을 끄집어낸다. “1번 충식은 십 이지장충, 3, 4, 7번은 회충이다. 5번은 회충, 요충. 6번과 10 번, 그리고 12번 충재는 편충…” 벌레 이름과 함께 호명된 아이들은 교탁 앞으로 나가서 약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당 번이 떠온 노란 양은 주전자 속 수돗물로 손에 든 구충제를 삼켰다.

시대적 빈곤 탓에 아동 인권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척박한 위생환경쯤이야 몸으로 겪어야 했던, 돌이켜보면 아만의 시절이 따로 없었다. 그래서일까 책벌레, 공북벌레, 돈벌레, 일 벌레, 연습벌레 등 아무리 좋은 수식이 앞에 붙어도 벌레는 벌레일 뿐이었다. 세상은 빈부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외치 지만 현실은 돈 없고 백 없는 이들을 벌레 취급했으며 장난 감을 갖지 못했던 아이들은 벌레를 놀잇감 삼기도 했다.

벌레 취급당했다는 생각, 누군가를 벌레보듯 했다는 행동은 어쩌면 사람들 스스로 감정 이입한 결과일지 모른다. 벌레 는 인류보다 먼저 존재해왔으며 인류와 공존해야 할 지구 생 명체, 가볍게 여기고 쉽게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은 인간이 만들어낸 피해의식이자 과대망상이다. 풀벌레 소리 에 감성 충만하고 무당벌레에 무한 애정을 보내고 개똥벌레 에 탐닉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자. 더는 혐오와 부정으로 대 상 이입하는 건 정신 건강에 해로울 뿐이다.



긍정과 개성적 의미로 충만(蟲滿)한 세상

세상은 달라지고 현실은 유연해졌으며 인간은 존엄과 존중에 가치를 두 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에 대한 조롱과 멸시를 벌레로 치환했던 표현 은 좀 더 영리하고 재미있는, 자기만의 특별함을 갖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부정의 대명사로 여겼던 낱말은 상대방의 특징과 탁월함을 아우 르는 긍정적 닉네임으로-한자어 충(蟲)을 넣어-사용되고 있다.

한때 커뮤니티를 통해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엄마벌레’라는 ‘맘충’을 비 롯해 ‘설명충, 진지충, 급식충’이라는 부정적인 표현들이 일부 논란을 빚 기도 했지만, 요즘은 어떤 일에 충실한 마니아적 인물을 ‘충(벌레)’에 비 유한다. 학구열로 충만한 공부충,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노 력충, 식스팩 복근으로 자기관리에 충실한 운동충, 만사에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열혈충, 클래식을 사랑하는 클래식충, 다양한 수집에 몰두하 는 수집충, 절약을 생활화한 절약충, 이웃돕기와 기부에 마음을 쏟는 기 부충 등 더 개성있고 더 독특한 벌레들의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한시적 트렌 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로 정착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 은 이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고 구축해나가고 있다. 자기개발을 위 한 공부나 학습에 투자하거나 운동이나 취미, 여행에 과감한 비용을 지 불한다. 똑같은 성공을 꿈꾸지 않고 자기만의 목표에 집중한다. 그렇게 해서 무슨무슨 ‘충’으로 불리면 그 또한 부캐로 활용할 줄 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벌레에 대한 부정 인식보다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 고로 의인화가 아닌 의충화(擬蟲化)를 즐긴다. 세상은 넓고 벌레는 많 다. 머니충, 레고충, 바둑충, 사진충, 영어충… 당신은 어떤 벌레이고 싶은 가. 이론벌레(益蟲)와 해론벌레(害蟲) 중 되도록 자신을 비롯해 조직, 사 회에 보탬이 되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알고 보면 충만(蟲滿)한 세상이다. 2023년 캐릭터 확실한 벌레 하나쯤 키워보자. **70**

보물 백자 대호,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전에 초대되다



조선백자의 정수, 군자의 기개를 드러내다

리움미술관이 2004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도자기만을 주제로 한 기획전전을 마련하였다.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君子志向)」전이 그것. 국내 외 조선백자 중 명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규모는 물론이고 조선백자 속 군자의 품모가 담겨 있었다는 해석을 더해 조선백자 감상에 새로운 지평으로 제시하는 전시회다. 그간 장식기법이나 주요 기종에 맞춰 소개되어온 조선백자 전시와 달리, 방대한 조선백자를 총괄하는 동시에 그 안에 투영된 조선의 역사와 당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함께 살펴보는 새로운 감상법을 제안한다.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전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조선백자 총 185점을 장식기법과 제작지역에 따라 간결하게 소개한다. 단연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1부 전시장. 들어서는 순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 총 59점 중 절반이 넘는 31점과 그에 준하는 11점 등 최고의 조선백자 42점이 어둠 속에서 절제된 품격과 당당한 아름다움을 발한다. 그야말로 1부의 <절정, 조선백자>라는 주제에 걸맞은 명품만 모아둔 것. 어둠에 굴하지 않는 조선백자의 스펙터클이 전시장을 압도한다.

이 중 우리 시선을 사로 잡는 것이 있으니, 넓은 도량과 티 없이 깨끗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백자 대호(白磁 大壺)>. 바로 故 현수명 회장이 1978년 부산박물관에 기증한 달항아리이다. ‘블랙박스’라는 전시공간의 이름처럼 온통 캄캄한 암흑 속에서 순백색의 미를 발하고 있는 <백자 대호>의 아름다움이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요즘, 18세기 조선의 새로운 전성기를 예고한 백자 대호와 대면하며 시대의 곤란을 헤쳐나갈 지혜를 구해보면 어떨까. 이번 전시는 5월 28일(일)까지이다. 70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君子志向)」전

2023.02.28(화)~05.28(일)
리움미술관 www.leeum.org
사전 예약 필수, 매주 월요일 휴관

백자 대호 白磁 大壺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
부산박물관 소장(현수명 회장 기증)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제2064호)

EXCITING

반백 년🌞도 어려운 데

70년 기업🏢이라고요?

그 어려운 걸🎯 화승이💙해냈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기업은요?

70년🎂이라는 묵직🦸하고

튼튼한 발판👉이 있는데 거뜰히

닫고😓일 어서야죠. 그러다 보면

100년 화승🏃이라는, 그 어려운 걸

또 이룩할👊것입니다.

부산 영도의

썬, 힙, 핫~한 피아크 P.ARK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2023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겐 어떤 방주가 있을까.
지난 2021년, 영도 바다를 전망으로 21세기 방주를 연상케 하는 복합문화공간이 오픈했다.
압도적인 규모와 독특한 공간 구성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어필하고 있는 부산 피아크,
MZ세대들의 포토 성지로도 유명한 핫 플레이스 속으로 들어가 본다.



지난 2021년 5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에 21세기 방주가 떴다. 대지면적 3,000평에 각종 전시와 페스티벌, 공연,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펼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피아크(PARK)이다. 플랫폼(Platform)의 '피(P)'와 방주를 뜻하는 '아크(ARK)'를 조합한 네이밍으로 '창작자들을 위한 방주 플랫폼(Platform of ARK for Creators)'이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2023년 현재, 지역민들뿐 아니라 멀리서 찾아오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은 부산의 선박 수리 기업인 제일SR기업에서 만들었다. 피아크가 신도시 위주 확장에 따른 구도심(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모델로 부각되면서, 부산 영도 일대는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명성까지도 되찾는 중이다.



피아크는 단면적 550평에 6층 구조 건물이다. 1층에는 매일 신선한 빵을 만들어내는 브레드 팩토리로 빵과 커피를 제조하는 시설에서 서른 명 남짓한 제과·제빵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들고 있다. 야외에는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이며 이례적인 것이라면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너른 대지를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으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약 400여 대의 차를 1층 지상 공간에 주차할 수 있게 했다. 2층은 다목적 공간으로 실내보다 넓은 650평 규모의 오션 가든(Ocean Garden)과 2~3층에 걸쳐 문화라운지(Culture Lounge)로 꾸며져 있다. 바다와 가장 가깝게 닿아 있는 오션 가든에서는 기획 전시 및 마켓 운영, 문화행사 등을 펼칠 수 있으며 인조 잔디 깔린 넓은 부지에서는 피크닉도 가능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존(Pet Zone)도 구성되어 있다.

3~4층은 바다를 조망하며 그날그날 구운 신선하고 다양한 빵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 계단형 좌석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이어진 이곳은 자연스러우면서 개방감 있는 피아크의 중심부이다. 5층은 레스토랑, 펍과 같은 F&B 업종을 위한 임대 공간이며 6층은 스카이 브릿지(Sky Bridge)로 웨딩홀, 세미나, 연회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간별 컨셉을 가진 압도적 규모의 피아크에는 이탈리아 조명 브랜드인 아르떼미데(Artemide) 무드등, 프랑스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드비알레(Devialet) 스피커 등이 곳곳에 배치되어 유니크함을 더해준다. 내방객들에게 보고 듣고 맡고 먹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육감의 힐링 공간, 피아크. 이보다 짝이고 힙하고 핫한 공간이 있을까, 또 다른 방주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비교는 정중히 사양한다. **70**



📍 부산 영도의 복합문화공간, 피아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195번길(동삼동 해양대 인근)
www.p-ark.kr 0507-1353-9202

풋살동호회 러버풀 FC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매일의 루틴은 소중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끔은 일상 궤도를 벗어나
나를 위한 힐링타임을 갖는 것이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기에 일상은 더욱 더 윤기가 나는 법.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화승코퍼레이션
풋살동호회 <러버풀> 회원들이다. 다들 운동화 끈을 매고 어떤 상념도 없이
공 하나를 쫓아 이리 뛰고 저리 달린다. 다들 소년처럼, 다시 청춘처럼.

풋.
풋한.
라이프





함께 땀 흘리며 내일을 향한 슈팅

“자, 스트레칭도 다 했으니 시작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경기해 봅시다” 드디어 경기 시작된다. 보통 한 달에 1번 모여서 2시간 가량 풋살을 한다. A팀과 B팀으로 나뉘서 5~6경기 정도 치른다. 풋살장에 웃소리와 숨소리만이 가득찬다. 경기를 마치고 나오는 사우들의 표정이 상쾌해 보이면서도 숨고르기 바쁘다. 15분 뛰는 것이 뭐 힘들까 싶었는데, 아니란다. 볼터치가 축구에 비해 적어도 5~10배 가까이 많단다. 좁은 경기장에서 공격과 수비가 연신 반복되니 체력소모도 크다. 축구경기와 달리 풋살 경기는 선수 교체의 제한이 없는 이유를 알 듯하다.

러버풀 FC의 멤버는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하고 30대가 주축을 이룬다. 월 모임할 때는 15명 이상은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30대들이 정기적으로 작은 풋살장에 모이게 하는 매력은 무엇일까.

“풋살의 매력요? 좁은 경기장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며 최선을 다해 팀플레이를 하며 땀을 흘릴 때 엄청난 쾌감이 있어요. 폐활량과 하체 근력이 좋아져서 체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바탕 경기를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가뻐해져요.” 러버풀 FC의 에이스이자 총무를 맡고 있는 김종우 선임(기획팀)의 자랑이다. 옆에서 열심회원인 김태형 선임(자산관리팀)도 한마디 거든다. “함께 경기를 하며 타 부서 사우들과 소통하고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풋살동호회의 매력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정재록 회장과 김종우 총무가 입을 모아 외친다. “유니폼 제작이요! 늘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고마운 회원들과 화승 러버풀 FC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유니폼을 입고 오래도록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뛰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도, 풋살장에서도요!” 어느새 사방이 어둑어둑하다. 어두워질수록 풋살장은 조명으로 빛난다. 그 가운데 러버풀 FC 사람들이 뛰고 있다. 한 가지에 몰두하며 땀 흘리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던가. 그날 풋살장을 누비며 연신 땀 흘리던 러버풀 FC도 멋졌다. 러버풀 FC, 원더풀! **70**

한 달에 한 번 풋풋한 애프터 워크

“아~와 이리 춥노”, “뭘 그리 약한 소리를, 볼 차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2월 21일 노을이 서서히 하늘을 예쁘게 물들여 가기 시작할 무렵. 부산 부산진구의 한 대형마트 풋살장으로 삼삼오오 화승코퍼레이션 풋살동호회원들이 모여든다. 이내 업무복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다들 경기할 채비를 한다. 추워서일까. 설레어서일까. 동호회 회원들의 표정들이 조금은 상기된 듯하다.

풋살동호회 정식 명칭은 <러버풀 FC(Rubberpool FC)>. 사우들이 회사의 사업영역인 고무의 영어명 ‘Rubber’를 영국의 프로축구클럽 ‘리버풀(Liverpool)’에 빗대 재밌게 합성한 팀명이다. 부르면 부를수록 매우 ‘고무적인’ 동호회 이름이다 싶다. 이 ‘고무적인’ 클럽명을 가진 <러버풀 FC>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정식 설립일은 2022년 7월 27일이에요. 화승코퍼레이션이 분할·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前 계열사의 동호인끼리 경기를 하다가 작년에 정식으로 설립을 했어요. 창립 멤버는 25명이었는데, 지금은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창립을 주도하고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정재록 선임(컨베이어벨트영업팀)의 소개이다.



baller

발레, 낮설지만 아름다운 예술

창립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는 화승, 오는 9월에는 임직원 및 지역민들을 위해 국립발레단 초청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화승인 만큼, 발레에 대한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듯하지만, 알고 보면 너무 가까운 ‘발레(Ballet)’에 대해 2회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발레에 대한 인식 및 역사, 유명 발레 작품들
2 K-발레의 현주소와 발레 용어 및 관람 에티켓

아름다운 발레, 달라져야 할 낯선 인식

‘발레(Ballet)’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발 끝으로 서는 가녀린 발레리나? 활짝 펴진 우산 모양의 치마? 꽤 오래된,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이라 부르는 발레는 이처럼 상징적인 이미지들로 각인되어 있다. 그렇다고 발레를 안다고 하기엔 여전히 낯설다. 전시회나 뮤지컬, 혹은 콘서트나 연극과는 달리 발레는 상위계급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일까. 발레가 16세기 프랑스 궁정에서 시작된 왕실의 문화였으니, 이런 인식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 발레는 더 이상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인 만큼 이제 취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실제로 발레 공연 티켓이 뮤지컬이나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한 공연예매사이트에서 발레는 늘 클래식 부문 랭킹 1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레를 멀게만 느끼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낯설지만 아름답다는 데는 동의한다. 낯설게만 느끼면 영원히 낯설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진리를 통해 발레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때다.

아름다운 몸짓에서 비롯된 발레의 역사

발레는 여러 종류의 예술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장르일 것이다. 웅장한 오페라 극장, 거대한 세트와 꼭 채운 무대, 반짝이는 보석으로 빼곡히 수놓은 의상을 입고 티아라와 온갖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무용수들까지.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호화롭기 그지없다. 이런 발레의 모습은 수백 년 전 서구의 왕들이 사치스럽게 즐기던 여흥으로부터 발전된 발레의 기원에서 비롯된다.

발레가 처음으로 왕실에서 꽃을 피운 곳은 프랑스였다. 메디치 가문의 카트린 드 메디치(Cathrine de Medici)가 프랑스 왕 프랑수와 1세(Francoise I)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국의 춤 문화를 프랑스에 이식했다. 메디치는 르네상스의 동의어가 된 피렌체의 대표 가문 아니던가. 이렇게 발레는 부유한 재벌가의 취향을 넘어 왕실의 취향을 만족시키며 업그레이드되었다. 카트린은 외국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날마다 행렬과 가장무도회가 가득한 연회를 열어 발레의 초석을 마련했고, 루이 14세(Louis XIV)는 최초의 발레 학교를 설립해 전문성을 갖추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표트르 1세(Pyotr I)는 서구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레를 수입했다. 루이 14세를 롤모델 삼은 러시아의 왕은 과거 프랑스의 화려함과 경쟁이라도 하듯, 발레는 19세기 러시아에서 황실의 중심 예술로 자리 잡아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왕들의 전폭적인 비호를 받으며 방대한 자원으로 지탱되고 있던 발레였기에, 왕정의 몰락은 발레를 변화시켰다.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시민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발레는 경제적 부를 획득한 신흥 부르주아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후원 계층과 관객층이 바뀌

었으니 발레가 변모하는 건 당연지사였다. 발레는 중산층의 이야기와 대중적인 취미를 대변해 문화산업으로 발전했고, 20세기에는 전 예술에 걸쳐 일어난 모더니즘(Modernism) 운동과 맞물려 발레의 현대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발레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유행에 따라 발레에서는 표현이 한층 자연스러워지고 주제도 다양해졌으며, 전위적인 예술적 실험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몇백 년 전 왕실에서 초연된 작품들이 현재까지도 공연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래전에 구축된 발레 기법이 전통으로 남아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발레의 세계화다. 영어가 만국 공통어인 것처럼, 무용예술에서는 발레가 그러하다. 시대적 감성이 변화했어도 여전히 살아 숨 쉬며 동시대 관객과 만나고 있는 발레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천상의 언어라 불리는 아름다운 몸짓,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처럼 지독한 훈련을 통해 완성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에는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게 분명하다.



01

02



알고 보면 재미있는 발레의 대표작들

지그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지젤>

어여쁜 시골 처녀 지젤(Giselle)은 신분을 숨기고 마을에 놀러 온 귀족 청년 알브레히트(Albrecht)와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그에게는 약혼녀가 있는 게 아닌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던 지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아 미쳐가다 그만 숨을 거두고 만다. 알브레히트는 죄책감에 지젤의 무덤가를 찾아오고, 죽은 처녀의 영인 윌리(Wili)들이 그를 둘러싼다. 지젤은 무덤가에 온 남자들을 죽을 때까지 춤을 추게 해 원한을 푸는 윌리들로부터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한다. 얼핏 납량특집에 등장할법한 처녀 귀신 이야기 같지만, 이 발레의 묘미는 순박한 시골 배경과 서늘한 윌리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극적인 대비에 있다. 1막에서 지젤은 순진무구한 시골 처녀의 모습에서 사랑에 상처받아 미쳐버리는 격정적인 연기를 소화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막에서는 천상의 존재가 지닌 영묘한 분위기가 지 표현해내야 한다. 감정의 폭이 넓고 다양해 많은 여성 무용수는 도전하고 싶은 역할로 지젤을 꼽는다. 순백색의 로맨틱 튀튀(발목까지 내려오는 발레 치마)를 입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윌리들의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고전발레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백조의 호수>와 <잠자는 숲속의 미녀>

두 작품은 어릴 적 동화책으로 익숙한 백마 탄 왕자와 아름다운 공주 이야기이다. 왕자들은 낮에는 백조로 변하는 가혹한 마법에 걸린 오데트(Odette) 공주를 구하고, 백 년 동안 잠이 든 오로라(Aurora) 공주를 입맞춤으로 깨운다. 이러한 작품의 줄거리는 요즘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힘들 정도로 구시대적이지만, 발레의 가장 고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대표작 중의 대표작들이다.

두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느냐, 혹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그 발레단의 수준을 가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작품은 19세기 러시아 황실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화려한 제정사회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게 해준다. 궁정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에서 무용수들의 배열은 철저히 계급적이고, 귀족들의 질서와 문화가 무대 위에 그대로 재현된다. 또한 민기 힘들 정도의 고난도 테크닉이 향연을 이루고, 군무진들은 올림픽 개막식이나 매스게임을 떠올리게 하는 칼군무를 선보인다. 고전발레에서는 줄거리를 나타내는 팬터마임과 줄거리와 상관없는 춤이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인공들의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맹세합니다'라는 팬터마임 이후 이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2인무(파드되, pas de deux)가 진행되는 식이다. 당시 발레가 궁정의 스펙터클을 반영해 제국의 위엄과 권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왕이 되어보는 경험을 만끽해보시라. 70

03



- 01 지젤(Paris Opera Ballet)
- 02 백조의 호수(Mariinsky Ballet)
- 03 잠자는 숲속의 미녀(Bolshoi Ballet)

다음 호에 계속 →

기업의 윤리경영, 지속 성장을 위한 마스터-키



기업의 평판 때문에 한순간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힘든 형편에도 사람들을 도와준 착한 가게에 “돈줄내려 가자”는 소비자들의 성원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자영업자의 사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듣는다. 서로를 잇는 발달한 기술환경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여론 확산의 결과다. 바야흐로 기업을 바라보는 고객의 인식과 행동이 달라진 시대, 사내 법무 부서에서는 화승 성장을 견인할 준수 법규 및 국내외 경영 사례 등을 연중 소개함으로써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확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기업에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시대적 상황

지난 2022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MZ세대가 바라보는 ESG 경영과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64.5%는 ‘더 비싸도 ESG 실천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투자나 소비 경향을 보여준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합친, 이들 MZ세대는¹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나 가성비를 보고 구매하지 않고, 이른바 가심(心)비, 친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가치를 고려한 ‘착한 소비’를 일상화하고 있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28.9%)’보다 ‘투명·윤리경영 실천(51.3%)’에 높은 비중을 두어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윤리적 인식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기업들이 윤리경영, ESG 경영에 전략적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 래리 핑크의 2020 연례 서한² 중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중심에 두겠다(Putting sustainability at the center of how we invest)’는 가치투자 선언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 ESG 투자규모는 2020년 기준 35.3조 달러에 달한다.³ 또한 2021년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규모는 78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 성장했고⁴, 올해 2월 ‘공무원연금기금’이 발표한 「2022년 책임투자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책임투자의 규모는 8,539억 원으로 22.5%의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9년 1,632억 원(2.5%의 비중) 기준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결국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투자, 존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기업들이 부패와 뇌물, 인권, 환경 등 비재무적 분야에서 사회적·제도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 실패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2000년대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이자 최대 신용파생상품 거래 기관이었던 엔론(Enron)사와 미국 내 2위 장거리전화업자였던 월드콤(WorldCom)은 윤리경영 실패로 파산에 이르렀다. 엔론사는 1985년 휴스턴 천연가스와 인터노스의 합병으로 탄생해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00년 매출은 1,000억 달러 이상이다. 총 자산은 약 650억 달러(약 660조 원)였지만 결국 대규모 회계 부정행위로 2001년 12월 파산했다. 이들 기업의 파산은 세계적인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윤리경영이 필수 덕목이 되어버린 기업 환경

최근 A사의 직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충격적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징역 35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022 글로벌 공인부정조사협회(ACFE)’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133개국의 2,110건의 사건에서 36억 달러의 손실이 보고되고, 매년 부정에 의한 매출 손실이 5%에 이른다. 달리 해석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한 매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ESG 경영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성공한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

얼마 전 포춘(Fortune)지는 투자 가치, 경영과 제품의 질, 사회적 책임 부담, 인재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을 발표하였는데, 애플이 1위, 아마존이 2위,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를 차지했다.⁵ 이들 중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꼽히는데 특히, 애플은 디자인, 기술 등 제품에 대한 혁신을 내세울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관을 녹인 ESG 경영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고 이를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애플(Apple)

ESG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의 관점(E)에서 203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아,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관점(S)에서는 5천만 달러 규모의 협력업체 직원 개발기금을 출범하여 공급망 내 근로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협력업체와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또한 조직적 측면(G)에서는 ESG 경영성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인사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 다양성포용 담당자로 흑인 여성 부사장인 데니스 영 스미스(Denise Young Smith)을 임명한 바 있다.

국내 한 보고서는 이와 같은 애플의 노력에 대해 자신의 기업 정체성에 부합하고, CEO의 경력과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ESG 경영을 추진해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해 기업의 성장과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⁶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윤리경영의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인 존슨앤드존슨은 50년 이상 윤리강령을 경영에 반영해왔고, 특히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사람 7명이 사망한 이른바 타이레놀 사건에서 윤리적 대처를 보여줬다. 회사는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타이레놀 제품을 절대 복용하지 말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즉각적으로 타이레놀의 제조과정을 모두 공개했으며 제품 3,100만 병을 모두 회수하여 폐기했다.

이로 인해 타이레놀의 시장점유율은 35%에서 7%로 하락했으나 결국 3년 만에 제자리를 회복했다. 타이레놀은 회사 순매출의 7%, 순이익의 17%를 차지하고 있었고, 손실액만 1억 달러에 이르렀지만⁷ 윤리경영을 통한 우호적 여론 조성으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유한킴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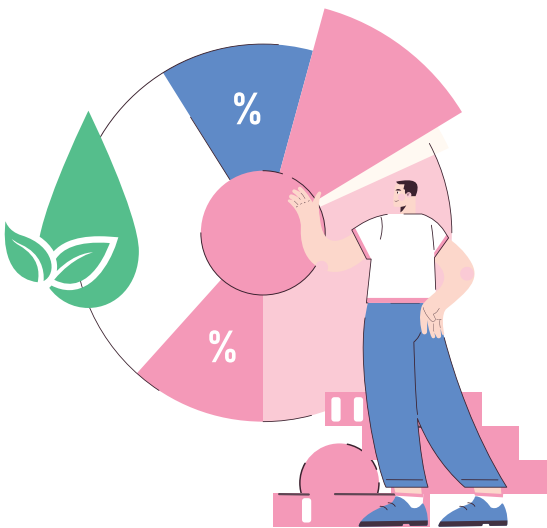
한국능률협회컨설팅가 주관하는 ‘202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5위로 19년간 연속 종합 Top6에 올랐다. 이는 삼성전자(1위), 현대자동차(2위), LG전자(3위), 유한양행(4위)에 이은 성과다.⁸

중견기업임에도 주요 사업의 시장점유율 1위를 지속하고 있는 유한킴벌리는 1984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장수 공익캠페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통해 5천5백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고, 몽골지역에 1,000만 그루 이상의 ‘유한킴벌리 숲’을 조성하는 등 기업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왔다. 2022년에는 약 280만 개의 생리대, 마스크 등의 제품을 소외계층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5,600만 명의 삶의 질 개선을 돕겠다는 장기적인 ESG 경영 목표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마스터키, 윤리경영

앞으로도 이러한 윤리경영, ESG 경영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의무화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예: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의 ESG 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고, EU는 협력사에 대한 인권 및 환경 관련 침해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공급망 실사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에 대한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승은 이미 지난 2015년 1월에 윤리헌장, 윤리규범 및 윤리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주주뿐 아니라 임직원, 파트너사, 고객,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해 지속경영 부서와 법무 부서를 두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화승의 정체성과 실력이 발휘될 수 있는 전략적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윤리경영을 강화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한 경영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70



1 한경닷컴 사전(hankyung.com)
2 Larry Fink CEO 연례서한(blackrock.com)
3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SIA)의 'The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GSIR 2020)'의 최근 발표(2021.7.19)
4 2022 한국 ESG 금융백서(kosif.org)
5 World's Most Admired Companies | Fortune
6 포스코경영연구원 모바일-애플이 ESG에 적극적인 이유(posri.re.kr)
7 [외국기업 윤리경영 사례] 존슨앤존슨-매일경제 (mk.co.kr)
8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ESG 경영 강화한 기업 흥했네...고객 "리스팩"-매일경제(mk.co.kr)

화승의 마음 모아, 튀르키예로!

화승코퍼레이션을 비롯한 화승R&A, 화승소재, 화승T&C, 화승네트웍스 전 임직원들이 튀르키예 대지진 구호를 위한 성금을 모았다. 현지호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모금, 더불어 튀르키예 화승법인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35만 리라(한화 약 2,400만 원)를 현지 재난관리청(AFAD)에 기부했다.

화승은 대외적으로 알리기보다 전 임직원들의 진심 어린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 튀르키예 현지에서 '화승의 이름'으로 전달하였다. 각사별 자율로 진행된 이번 모금에는 사내 식당에 모금함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튀르키예 화승법인 유왕열 법인장은 “화승이라는 이름 하나로 뜨거워지는 고마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전했다. 더불어 “튀르키예 현지에서도 화승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해왔다”고 한다. 어려울수록 마음을 모으는 화승의 따뜻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순간이었다.



이어령 선생 추모문집 『신명의 꽃으로 돌아오소서』, 고도원 이사장의 신간 『고도원 정신』 출간

화승 현승훈 회장의 스승으로 지난해 작고한 이어령 선생의 1주기를 맞아 추모문집 『신명의 꽃으로 돌아오소서』가 출간되었다. 고 이어령 선생은 작가이자 교육자, 언론인이자 문화 비평가, 그리고 문화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살아생전 지성과 영성으로 시대를 깨운 인물이었다. 만인의 스승이자 지도자로 평소 선생과 교분을 나눴던 이들이 선생에 대한 추모의 글들을 엮어 1주기 영전에 바쳤다. 추모 에세이 『신명의 꽃으로 돌아오소서』는 정치·경제, 문학, 언론, 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존경받고 명망 있는 72인의 글로 엮여졌다. 필진으로 참여한 현승훈 회장은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라는 표제로, 스승 이어령 선생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았다.

우리나라 최초 이메일 매거진 <아침편지>의 발행인이자 명상센터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인 고도원 작가의 신작이 출간되었다. ‘절벽에도 길은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고도원 정신』이다.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정신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한 개의 길이 막히면 열 개의 길이 열린다’는 작가 고도원의 정신세계와 행동철학을 느낄 수 있는 『고도원 정신』은 전체 6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5장 ‘치유_고요히 길고 깊은 숨을 쉬다’에는 <아침편지>의 오랜 독자인 화승 현승훈 회장과 그의 작은 인연도 소개되어 있다. 시대의 스승이 남긴 발자취, 지혜로운 삶을 위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신명의 꽃으로 돌아오소서』와 『고도원 정신』을 펼쳐보자. 부산 사옥 사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화승R&A, ‘지역 투자·창업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및 상호협력’ 협약식 참석

지난 2월 27일, 화승R&A는 경남 양산시 소재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된 ‘지역 투자·창업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및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양산시 주최의 이번 협약식에는 시와 의회 등 정계, 그리고 지역 내 대표 기업 및 대학 등 16개 기관들 대표와 시민통합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여 기업으로는 ㈜화승R&A를 비롯해 넥센타이어(주), ㈜성우하이텍, ㈜쿠쿠전자, ㈜엠에스씨, ㈜송월, 디씨엠(주) 등이다. 지역 투자·창업 활성화 거버넌스는 기존 행정 중심의 경제 운영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대학 등 산·학·관·정이 협력하여 기업 유치와 투자·창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나가기 위함이다.



화승R&A와 화승소재,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지난 2월 22일 양산공장에서는 출퇴근(06:30~08:00, 17:00~18:00) 시간을 활용해 사내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는 화승R&A(대표이사, 임원, 생산팀장, 노동조합, H&S팀)와 화승소재(임원, 생산팀장, 노동조합, 인사안전팀)가 주축이 되어 참여하였다.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출근길 안전 인사를 시작으로 위험예방문구 피켓 및 배너와 현수막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출퇴근 직원들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하였다. 사업장 내 홍보물을 부착해 운영할 것과 마지막으로 노사 화합을 위한 기념사진 촬영으로 이번 캠페인을 마무리지었다.



화승비나의 소통 창구, NEWS LETTER

2013년 본격적으로 발행된 화승비나의 뉴스레터는 회사의 기쁜 소식과 대소사를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10년 동안 매월 진행되었던 행사들과 교육, 이벤트 등의 주요 뉴스를 직원들과 나눌 수 있는 통로였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보건에 대한 알찬 정보와 개인위생에 대한 정보 알리미로서, 회사가 어려울 때는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협력과 지혜의 매체로도 활용되었다. 뉴스레터는 각 공장에 배치된 게시판에 베트남 버전과 영문 버전으로 나눠 게시되고 있으며, 현재는 화승엔터프라이즈 홈페이지와 화승비나 페이스북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화승비나 뉴스레터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화승비나의 아름다운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도구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화승비나, 부산상공회의소, 양산시청, 양산상공회의소의 족적을 남기다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베트남에 위치한 화승비나에 양산시청, 양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산업시찰단이 차례로 방문했다. 베트남 진출 모범기업에 대한 산업시찰로 부산, 양산 소재 세 기관은 화승비나의 규모에 놀라고 스마트팩토리로 변모한 화승의 신발 기술력에 또 한번 감탄했다. 현장 투어, 디지털센터 프리젠테이션, 화승 소개로 이어진 시찰 프로그램은 베트남 일정 중 가장 뜻깊은 순간으로 각인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hwaseung_official

...



hwaseung_official _BEGINNING OF HWASEUNG
화승이 7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hwaseung#화승#창립#70주년
#창립70주년#화승창립70주년

화승이 70주년 기념 인스타그램을 오픈했습니다. 화승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턱이 낮도록 방문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www.carlumi.co.kr

CAR[®]
LUMI

화승케미칼 70

©2023 HWASEUNG CHEMICAL Inc. All rights reserved.

70년을 처음처럼,
오늘의 화승을 만든 정신이다.
초심의 지속가능성,
화승인의 인화가 만든 힘이다.

화승 70년,
25,550일의 초심으로 이루어졌다.